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후보 인터뷰

# “중소회계법인 오랜 경험… 박탈감 채울 상생대책 마련”

##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 현실화 과도한 규제, 형평에 맞도록 조정 감사공영제, 빠짐없이 도입해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차기 회장에 출마한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63·사진)는 중소기업법인을 적극 공략 중이다. 올해 한공회는 선거에서 처음으로 서울 현장 투표가 아닌 전자 투표 방식을 채택하면서 중소기업인 소속 회계사의 영향력이 커졌다. 실제 모든 후보가 중소기업법인과 ‘상생’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온 이유다. 중소기업법인에서 오랜기간 실무 경험을 한 최 대표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최 대표는 9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 회계법인 소속 회원들의 박탈감을 채워줄 상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공약에는 중소기업법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녹아있기도 하다.

먼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법인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사 40명 이상 등 총 18가지 자격요건을 갖



###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학력 및 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석사,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 감사, 이사
-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 주요공약

-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과징금 등 과도한 규제를 형평에 맞게 조정
-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기준 현실화
- 표준감사시간을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 한공회 회원들의 회비 부담 경감

춰야 한다. 대형 회계법인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대표는 “현행 감사인 등록기준 중 일부는 감사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추상적이어서 평가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서 “객관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임기 내 중점 추진사항으로 ‘과중한 규제 완화와 감독당국의 감독기준 현실화’를 꼽았다. 회계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를 형평에 맞

게 조정하겠다는 것.

최 대표는 “현행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감사보고서 발행일로부터 8년이다”면서 “언제든지 피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이 너무 오랫동안 감사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징금 또한 부담이 과중하다. 타 전문직과 외국의 입법사례를 고려해 균형잡힌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공영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입 과정에서 회계사들의 사회적

기여도 강조했다. 여성 회계사·지방에서 근무하는 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사회 공익 기여 차원에서 한공회에서 일정부분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베네핏(이익)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 재정을 한공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파트타임’ 도입이 휴업 회계사를 활용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봤

다. 이들이 감사공영제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다.

최 대표는 “여성 회계사 중 육아문제로 쉬고 있는 분들이 많다.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지방에 가면 지방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이 크지 않아서 감사공영제가 시행되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표준감사시간 산정과 감사절차 지시서 구체화·현실화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공인회계사 합격자수 결정 ▲한공회 업무합리화를 통한 회원들의 회비부담 경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그의 강점은 한공회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 감사, 이사직을 맡아왔다. 실제 기자간담회 등 한공회 행사에서 항상 최 대표가 자리를 지키며 중소기업법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최 대표는 “오래 한공회 활동으로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깊게 알고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갖고 있다. 우리 조직의 모든 계층 간, 나아가 중앙과 지방회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올해 수입보험료 증가율 1.5% 전망”

보험료 “손보는 5.2% 증가 예상” 생보, 전년 대비 1.8% 감소 관측 코로나19 영향 영업환경 악화

올해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가 1년 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명보험 산업의 경우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손해보험 산업은 5.2%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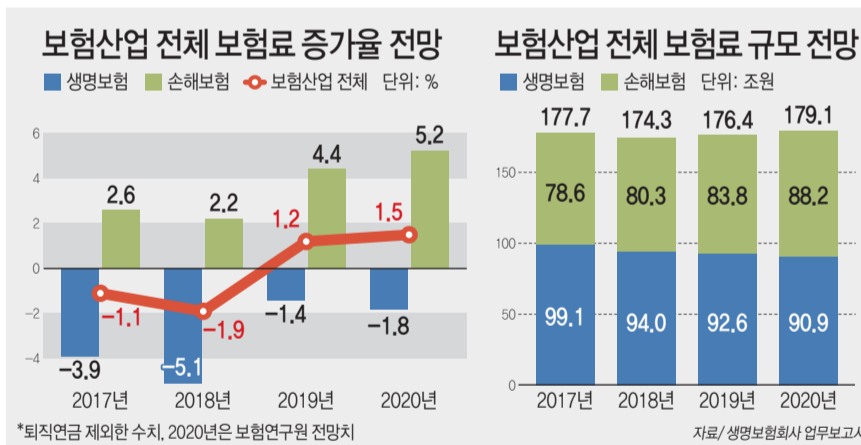
보험연구원이 9일 발간한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퇴직연금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가 전망됐다.

이는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5월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화된 상태로 생활방역 수준을 유지해 대면영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0%, 하반기 국제(10년)금리가 1.4%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1900~2200 범위에서 등락한다는 전제도 깔렸다.

생명보험 산업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폭은 전년(-1.4%)보다 확대됐다.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2% 성장하며 전년(4.4%)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배상책임 관련 의무보험 증가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4.9%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해 전년 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7.2% 감소가 전망됐다.

올해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역량 강화 전략 등으로 생명보험은 8.4%, 손해보험은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나해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됐다”며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의 보험가입 여력 약화와 해지율 상승이 하반기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새희망홀씨 공급 3.8조… 목표 114% 달성

금리하락하며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 작년 연체율 2.23% 하락 ‘안정세’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평균금리와 연체율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5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3조 75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1억원(2.6%) 증가했다. 공급목표 3조 3000억원 대비로는 113.8%를 달성했다.

새희망홀씨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금리는 연 10.5% 이내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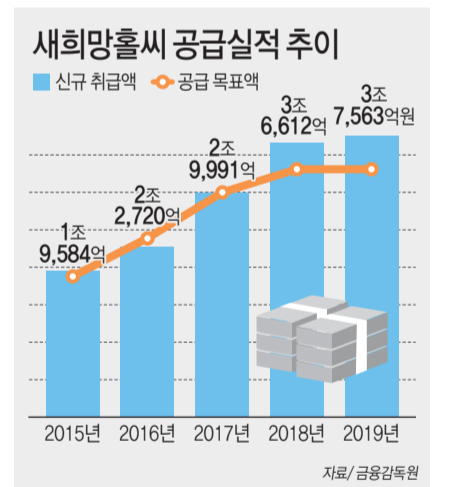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01%로 전년 대비 0.60%포인트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도 지난 2017년 7.85%에서 2018년 7.61%, 2019년 7.01%로 낮아졌다.

특히 작년에는 새희망홀씨 평균금리가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 하락폭(0.3%포인트)보다 더 하락(0.6%포인트)하며 신용대출 금리와의 격차를 줄였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2.23%로 전년 대비 0.35%포인트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92.2%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으



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가 가능하도록 새희망홀씨 대출이 지원했다”며 “은행 건전성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서민 등에 대한 지원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계획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전년보다 1000억원 증가한 3조 4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시중은행이 2조 47억원(72.5%) 규모며,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6400억원(18.8%), 2900억원(8.7%)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